

‘이리와 안아줘’ 허준호·‘무법변호사’ 이혜영

범접할 수 없는 악인연기에 매료

캐릭터 100% 빙의 스토리 몰입 큰 도움

12명을 이유로 없이 죽이고도 누우치기는커녕 교도소에서 자서전을 내는 사이코패스와,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탐욕의 여왕. 섬뜩하기로는 위아래를 가릴 수 없는 두 악인이 각각 평일 밤과 주말 밤에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다.

MBC TV 수목극 ‘이리와 안아줘’의 살인마 윤희재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인간이란 그런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휘두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미친 세상이지. 화풀이는 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그의 인성판에서 볼 수 있듯 윤희재는 병적인 거짓말로 상대를 통제하고 후회나 죄책감,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자신과 매우 닮은 장남 현무(김경남 분)에게는 박하게 굴고, 자신과 정반대로 유순하고 똑똑한 나무(도진, 장기용)를 편애하는 것 역시 앞뒤 안 맞는 사이코패스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미 여러 작품에서 섬뜩한 악인 연기를 능숙하게 소화한 허준호(54)는 이번 작품에서 어느 때보다도 시청자 간담을 서늘케 한다.

신에 장기용과 진기주가 애절한 로맨스 라인을 그린다면, 허준호는 화면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장르극에 더 가깝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한 치 흔들림 없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윤희재 모습에 밤 10시 분방송을 보지 못하고 다시보기를 선택하는 시청자가 적지 않을 정도다.

누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여유를 부린 그가 박희영(김서형) 기자의 계속되는 도발에 결국 ‘돌변’, 교도관의 목을 딱 죽기 직전까지만 흐르는 모습을 흡사 공포영화를 보는 듯했다. 이렇듯 작은 얼굴 근육부터 목소리 톤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내공을 지닌 허준호는 신예들이 나섰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꽉 채우고 극 무게중심을 잡아준다.

허준호 소속사 제이스타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역할의 무게감이 큰 만큼, 허준호가 겸손



허준호



이혜영

한 자세로 충실하게 작품에 임하고 있다”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실내에 있는 장면이 많은 캐릭터이다 보니 최대한 햇빛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등 외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촬영 외에는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작품과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vN ‘무법변호사’ 속 기성지법 판사 차문숙은 윤희재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사이코패스이다. 남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야 하는 꼬인 본능에, 그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진력(?)과 매번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영리함까지 갖췄으니 ‘완전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인자한 얼굴로 법조계 안팎의 존경을 받으며 ‘기성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니 더욱 섬뜩하다. 특히 존경받는 아버지 차병호의 동상을 보며 늘 자신의 욕망을 되새기는 장면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봉상필(이준기)을 불러들인 게 차문숙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또 한 번 반전을 불렀다. 수십 년 자신을 도운 안오주(최민수)가 몸집이 커지자 그를 손하나 안 대고 제거하기 위해 봉상필이 자신에게

칼을 찌를 것이라길 알면서도 승부수를 둔 것이다. 배우 이혜영은 이렇게 이중적인 차문숙을 실제 있는 인물처럼 100% 구현한다.

그는 전작 ‘마더’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들에게 한없이 주고자 하는 엄마 차영신을 절절하게 그려내 호평받자마자 차기작으로 180도 다른 모습의 차문숙을 선택했고, 역시 완벽하게 해냈다.

대중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재판관인 양 미소를 짓다가도, 자기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실제로 무릎까지 꿇리며 ‘나는 개’라고 확인하는 차문숙은 이혜영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가 됐다.

앞서 이혜영은 “마더” 캐릭터에서 (너무 몰입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차문숙이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무법변호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최민수와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서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다”며 “두 사람 다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악역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라 마음껏 발산하는데, 그게 이준기, 서예지와 이질감이 들지 않는 것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vs 멕시코전 해설 승자 이영표

지상파 3사 전문 해설 호응

주말 밤에 열린 두 번째 한국전의 해설 승자는 이영표였다. 지난 18일 한국-스웨덴전에 이어 2연승이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한 한국-멕시코전의 시청률 합은 34.4%였다. 채널별로는 KBS 2TV 13.4%, MBC TV 11.5%, SBS TV 9.5%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스웨덴전의 3사 시청률 합은 40.9%였으며, 1위는 KBS 2TV였다.

경기는 1-2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민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각각 해설위원으로 나선만큼 채널을 돌리라며 경기를 지켜봤다.

KBS는 차분하고 안정된 호흡을 자랑하는 이영표 해설위원-이광용 캐스터에 더해 가장 최근까지 필드에서 뛰던 이근호 해설위원이 합류해 평소보다 활발한 중계를 보여줬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멕시코 관중의 야유가 경기장을 빠르게 채워 현장 음향 상황이 좋지 못했던 가운데 또랑또랑한 발성을 자랑하는 이영표 해설위원 덕분에 KBS 중계가 3사 중 가장 잘 들렸다.

MBC는 다수 예능 출연을 통해 쌓은 입담과



지도자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안정된 해설위원과 김정근 캐스터, 서형욱 해설위원이 중계했다.

안정환 해설위원은 이날도 특유의 현장감과 역동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상대 팀의 전술을 빠르게 이해한 후 선수들에게 실시간으로 코칭해주는 듯한 해설을 선보여 축구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SBS의 ‘빠박컴비’, 박지성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는 지난 개막전, 한국-스웨덴전보다 훨씬 좋아진 호흡을 자랑했다.

특히 박지성 해설위원은 한층 안정된 목소리 톤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꿰뚫으며 집중한 해설을 보여줬다. 중간중간 북기를 통해 스웨덴전과 비교해주는 해설도 호평을 받았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美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즈’ 수상

‘베스트 듀오·그룹’ 등 4관왕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클럽 아미와 함께 미국 라디오 음악 시상식인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즈’(Radio Disney Music Awards) 4개 부문

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2018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듀오·그룹’(Best Duo/Group)상을 비롯해 ‘마이크 드롭’(MIC Drop)리믹스로 ‘베스트 댄스 트랙’(Best Dance Track), DNA로 ‘베스트 송 댓 메이크스 유 스마일’(Best Song That Makes You Smile)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음5월 12일 戊子)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